

오피니언

월/요/광/장

최 협



베이징대학을 세계적인 일류대학으로 만들기 위해 2001년에 설립한 위안페이(元培)학원이 큰 성과를 내고 있다는 소식이다. 기초학문을 폭넓게 배우고, 글쓰기와 비판적 사고능력을 강조하는 자유전공제도를 주축으로 한 교육혁신이 궤도에 올라 이제는 국제무대에서 당당히 겨룰 수 있는 창의적인 인재들을 배출하고 있다.

1949년 공산당집권 이후 중국의 대학은 소련 방식을 따라 관료양성과 전문기술교육에 치중해왔고, 이는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적인 인재양성과는 동떨어진 구시대적 교육방식이라는 한계를 안고 있었다.

그러나 1998년 베이징대 개교 100주년 때 장재민(江澤民·강택민) 당시 국가 주석은 '세계 일류대학을 만들라'고 주문했다. 교수들은 2년간의 연구와 토론을 거쳐 중국 최초로 자유전공학부 제도를 도입한 단과대학을 만들 것을 결정했다.

일류대학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이었다. 신설된 학원 이름은 20세

기 초 베이징대 총장(당시에는 교장으로 칭함)을 지낸 차이위안페이(蔡元培·채원배) 선생의 이름에서 따왔다.

여기서 주목을 끄는 사실은 그렇게도 중요한 대학의 이름을 생의 말기에 중국 공산당에 대해 비판적이었고, 폭력적 혁

률 받고 있다.

그의 이러한 단면을 보여준 일화로는 나중에 초대 공산당 총서기 된 천두수(陳獨秀·진독수)에 관한 이야기가 좋은 보기이다. 당시 베이징대 문학교수로서 학생들에게 마르크스 사상을 심어주던 천두수가 술을 지나치게 많이 마시고 다닌 다하여 동료교수들이 총장에게 그의 해임을 건의하자, 차이위안페이는 "교수의 평가는 술집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강단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며 요구를 일축했다.

학자와 교육자로서 차이위안페이가 보

학문에 압도되었던 유교를 현대적으로 재창조함으로서 유교를 지키고자 했던 '현대 신유학'의 아버지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인물이다.

만일 1910년대의 시대적 유행과 조류에 휘말려 차이위안페이가 양수명을 베이징대 교수로 초빙하지 않았다면 '현대 신유학'은 태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런 점에서 프랑스와 독일에서 공부한 차이위안페이가 일본 유학을 한 천두수를 깨닫고, 전통한학자 양수명의 진가를 인정하는 등 인재를 넓리 구해 학문과 사상의 다양성을 찾기 위해 시대를 앞서 이끌어갔다는 사실이 새롭게 평가되고 있는 것이다.

확실히 차이위안페이는 무술정변의 실패 원인을 인재양성의 부족에서 찾을 정도로 교육의 중요성을 일찍이 간파한 혁안을 갖고 있었으며, "구국의 근본적인 길은 학술에 그 기반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 선각자였다.

때마침 지역의 대학들이 새로운 총장을 뽑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부디 대학의 선거가 아카데미즘의 회복을 위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기초학문 교육을 강화하고, 다양성과 포용의 정신이 존중되며, 아카데미즘의 회복을 대학에 가져올 총장이 우리지역의 대학들을 이끌어나가기를 기대해 본다. <전남대 교수>

※ 본문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차이위안페이 총장을 찾습니다

명에는 찬동하지 않았던 인물에서 따왔다는 점이다. 이는 중국당국이 대학의 아카데미즘의 회복과 학문의 자율과 자유가 국가적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음을 뜻하는 것이 아닐까?

차이위안페이는 단순한 사회주의적 지

식인이 아니라 진보적, 자유주의적 입장, 무정부주의적 취향, 평민주의적 지향, 정치적으로는 반공과 반독재민권운동 등의

여러 측면을 복합적으로 보여준 인물이었다. 특히 그는 베이징대의 총장으로 재직할 때 "사상의 자유와 무엇이든 표용한다"는 원칙으로 대학을 이끌었다는 평가

는 그가 유럽유학을 마치고 귀국해서 1916년 초대 베이징대학 교장이 되자 다양한 사상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공정하게 두루 채용하였기 때문이다.

그는 서양학문과 혁명노선을 추구하는

지식인들뿐만 아니라 양수명(梁漱溟)같이 학력도 없고, 전통한학을 공부한 인사

도 교수로 초빙하였다. 양수명은 그가 1924년 북경대학을 사임할 때까지 청년

들이 거슬러보지 않는 유학강좌를 꾸려나

가 그 당시에는 주목받지 못했으나, 오늘

날에는 그가 19세기 말 아래 서양근대의

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이른바 '반의사불법죄'의 경우 피의자는 처벌받지 않고, 피해자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가능하게 된다.

진심으로 반성하며 피해회복에 노력하는 피의자와 그렇지 않은 피의자가 다른 처분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범죄피해자보호법 제45조 제4항도 "검사는 형사사건을 수사하고 처리할 때 형사조정 결과를 고려할 수 있다"고 규정해 그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필자가 현재 근무하는 광주지방검찰청의 경우 형사조정이 활성화돼 매일 형사조정위원회에 사건을 회부해 양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를 기대된다. 때론 조정에 응할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터무니없는 오해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형사조정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더 많고, 원만한 합의를 통해 좋은 결과가 얻어지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필자는 분쟁의 당사자들에게 형사조정을 권한다. 조정에 응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당사자의 자유다. 조정에 응하지 않더라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고, 조정에 응한 경우에도 서로 의사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수사가 이루어지므로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 조정이 성립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다.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

<광주지검 형사 제3부 검사>

'대한민국 광주광역시 동구문화예술단'으로 배우라는 칭송을 받으며, 첫날 거리페레이드 참가와 두 차례 공연, 페막식의 특별 공연까지 편안하게 참여할 수 있었던 건, 자발연을 한 월수구의 애정 어린 환대, 늘 지내왔던 이웃처럼 포근함, 대화는 통하지 않았지만,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뒷바라지, 눈빛으로 느낀 따스함이었다. 월수구청에 자리한 우리의 얼이 담긴 강진청자와 진다리 붓 또한 우리 문화의 자긍심을 갖게 하였다. 인생이 살만한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신념과 열정이다. 그동안 영혼이 주름지지 않기 위해 혼신을 다하신 '나르사' 회원들, 충우광장의 빛은무대에서 화사한 한복으로 한국의 기품을 떨친 우리들이 그날의 주인공이었다.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생의 여행길에 내생의 밤자취를 남기며, 충우광장에 그들의 마음속에 애결한 아리랑을 남기고, 월수구의 아름다운 추억을 안고 돌아왔다. <시인·우리춤 '나르사' 회장>

이 있는 정상 부동산업자들은 피해 시 보상 받을 수 있는 공제조합도 기업이 돼있지만 불법 중개업소에서 계약을 하면 문제가 생기더라도 보상을 받을 길이 없다. 이럴 경우 소송까지 이어지지만 자격증을 대여해준 사람과 대여한 사람이 서로 책임을 미루기 쉽다.

부동산 거래는 한 가정의 평생의 보금자리에 해당하는 큰 돈이 오가는 일이다. 그걸 무자격자들이 중개하고 피해를 입게 하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규제했으면 한다.

▲권희숙·광주시 남구 압촌동

법조칼럼



김 금 이

2005년 10월의 어느 날, 누가 합격자 명단에서 본인 이름은 한눈에 보인다고 말했던가! 너무 긴장한 필자는 가나다 세로 순이었던 합격자 명단을 가로 순으로 읽어 버렸고, 한참만에야 구석에 숨어 있던 이름을 발견할 수 있었다. 순간 고단했던 고시 준비 생활이 끝나고 드라마에서 보아 오던 멋진 인생이 시작되었겠지 기대했지만 그것은 꿈이었다. 범죄인은 분쟁의 한가운데 서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결코 쉽지 않은 직업이라는 사실을 깨닫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필자는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선임변호사로 법조인 생활

을 시작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사업자와 소비자 간에 발생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립된 위원회로, 필자는 발생한 분쟁에 대해 사업자의 책임이 인정되는지, 인정된다면 그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 등을 법률적으로 검토하는 일을 맡았다. 사업자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소비자는 곧바로 "기업으로부터 돈 받은 거 아니냐?"는 말을 내뱉었다. 소비자에게 배상하라는 결론이 나면 기업들은 "소비자 편에서 서 만 결론을 내리는 거 아니냐?"며 불만을 내뱉었다. 분쟁의 양 당사자를 만족시키는 일은 쉽지 않았다.

지난해 6월 필자는 변호사 중에서 검사로 선발됐다. 사건의 성격은 달라졌지만 어떻게 하면 적정하게 사건을 잘 처리할 수 있을까, 고민은 계속되었다. 형사사건의 고소, 고발인들은 필자가 상대했던 소비자들보다 더 마음이 상해있었다. 놀라운 건 민사에만 활용되는 줄 알았던 조정제도가 형사 사건에서도 활용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범죄피해자보호법 제41조는 "검사는 피

의사와 범죄피해자 사이에 형사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여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엄정한 국가형벌권 행사 못지않게 피의자와 피해자 간의 진정한 화해, 피해회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필자는 처분을 결정하기 전 형사조정위원회에 사건을 회부해 양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를 기대된다. 때론 조정에 응할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터무니없는 오해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형사조정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더 많고, 원만한 합의를 통해 좋은 결과가 얻어지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필자는 분쟁의 당사자들에게 형사조정을 권한다. 조정에 응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당사자의 자유다. 조정에 응하지 않더라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고, 조정에 응한 경우에도 서로 의사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수사가 이루어지므로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 조정이 성립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다.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

<광주지검 형사 제3부 검사>

기 고



강 숙 자

"아리랑~ 아리랑~ 아리리요~" 중국 광저우시 월수구 광부묘회(廣府廟會) 충우광장에 울려 퍼진 애환이 서린 "아리랑", 태극부채를 들고 아리랑에 맞추어 광자우 시민들에게 보여주었던 물짓의 언어. 무대에서 내려온 멋진 춤의 언어. 무대에서 멋진 춤의 언어. 지금도 광자우 시민들의 뜨거운 환호와 카메라의 셔터 소리가 친환경에 들리는 듯하다.

지난 11일 중국 광자우시 월수구에서 열린 광부묘회 민속신앙 행사에 참여하였다. 광부묘회는 월수구 정부가 문화강국을 건설

오! 아리랑, 충우광장의 그 환호

하려는 국가정책에 호응하여 개최한 전통문화 축제로 2번째로 열리는 축제였으며, 우리 동구의 춤장로축제와 같은 맥락으로, 민속문화공연과 시민문화와 세대간의 통합, 지역과 세대를 뛰어넘은 새로운 도시축제의 전형을 모델로 한 축제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조금은 다르다고 생각된 건 인구가 많기 때문에 참여 인원이 너무 많아 혹 사고가 우려된다는 점.

보름 전통명절기간에 페레이드 공연과, '광부묘회, 행복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열린 광동문화 카니발. 7일간 진행되는 퍼레이드에는, 나무인형놀이, 중국전통 쇼, 무술대회, 보름맞이 연회 등을 주제로 하는 행사와 기복문화, 민속문화, 비즈니스 레저문화 등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저희의 방식으로 광동문화 특색의 이미지를 강조하면서 광동문화

의 응집력과 영향력을 활성화하고 시민들의 문화생활을 풍요롭고 활발하게 이끌어가며 명절 분위기 속에서 시민들이 공동문화를 알게 하고 광자우에서 행복한 만남을 갖도록 한다는 축제의 주제였다.

시민의 호응과 관심은 대단했으며 비록 행사지만 광자우를 수호하시는 성황님을 뵈려는 시민들은 열광적이었다. 도로는 봉쇄되고, 관람하려는 시민들에게 의해 도로가 메어진 것도 불거지 종의 하나였다. 성황묘 앞 상가에서는 주강삼각주 일대의 주요 비물질문화유산들이 전시판매되고 점포에서는 도자기 수예품, 빨조각, 감밥찌와 조각, 옥조각 등을 전시하며, 무형문화인들이 직접 나와 작품을 만들었다. 임시점포에서는 각 지역의 음식들이 마련되고 전통 먹거리 식재료들이 현장에서 전시 판매되었다.

격증도 없고 전문성도 떨어지지 않으며 그 공인증개사는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다.

득달같이 부동산 중개업자를 만나 몰아세우고, 만약 그 돈을 날리게 되면 당장 고발하겠다고 유탄지르며 부랴부랴 후속조치를 해서 간신히 돈을 찾기는 했지만 지금도 아찔한 일이었다. 만약 그 돈을 날렸더라면 아마 지금 길거리에 나았을 것이다.

이 중개업자는 불법 부동산 중개보조원이었다. 이들은 생활정보지에 허위 광고 등을 내걸면서 소비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는데 자

서민 피해 부르는 부동산 중개업 자격증 대여 규제해야

활선 넘는 근처당 등이 설정돼 있었으며 그 공인증개사는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다. 득달같이 부동산 중개업자를 만나 몰아세우고, 만약 그 돈을 날리게 되면 당장 고발하겠다고 유탄지르며 부랴부랴 후속조치를 해서 간신히 돈을 찾기는 했지만 지금도 아찔한 일이었다. 만약 그 돈을 날렸더라면 아마 지금 길거리에 나았을 것이다.

이 중개업자는 불법 부동산 중개보조원이었다. 이들은 생활정보지에 허위 광고 등을 내걸면서 소비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는데 자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시 설

학력 지상주의 떨쳐낸 고졸 채용 확산

광주지역 행정기관과 기업체가 올해부터 고졸 출신 채용을 대폭 늘린다고 한다. 광주시는 지난 주 시청에서 교육과학기술부와 시 교육청, 상공회의소 등 14개 주요 기관·단체들과 '고졸 취업문화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고교 졸업생 취업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공공·농업·시설·통신 등 기술직 20% 이상과 기능직 30% 이상을 고졸자로 채용하고, 시 교육청도 기술직 공무원 20% 이상을 학교장 추천을 받아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졸업자를 우선 뽑기로 했다.

기업에서는 (주)엠코테크놀로지코리아가 150명, (주)피피아이 50명, 광주은행 15~20명 등 220여 명의 고졸자를 신규로 채용 계획이다.

지난 2010년 상반기 광주은행이 은행권 최초로 4명의 고졸 출신 행원을 채용하면서 비롯된 고졸 채용 흐름이 전 취업 전선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고졸 채용 확대는 우리 사회의 병폐로 지드시 줄여야 한다.

영산강 주변 지자체 신규 개발 못한다니

공장이나 아파트 건립은 물론 각종 도시계획, 관광사업 등 일체의 개발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지자체로서는 심각한 문제다.

물론 한도를 초과해 오염물질을 배출한 지자체 문제이긴 하나, 정부가 관련 법을 10년 동안이나 사장시키면서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채 갑자기 시행하는 건 온당치 않다. 하수종말처리장 등 오염자감시설을 지원하는 등 정부 차원의 노력이 선행됐어야 했는 얘기다.

이번 조치는 2002년 제정된 '3대 강수계 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행정 제재 조항을 첫 적용한 것이며, 정부가 환경 관련법을 이겼다는 이유로 지자체의 신규 개발사업을 금지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환경부가 정부 각 부처에 해당 지자체 명단을 통보하는 순간부터 협력이 발생되며, 각 지자체가 협용기준 이하로 오염물질 배출을 줄일 때까지 계속된다.

정부는 갑작스런 개발행위 전면 금지에 따른 충격과 고생